



## 전남 순천·여수·보성·고흥

# 깊은 뿌리바탕 '도약' 행보 분주

**# 순천** 순천 조계산은 두개의 총림이 자리한 한국불교 성지이다. 조계총림 송광사와 태고총림 선암사가 그것. 두 사찰 모두 조계종, 태고종을 대표하는 총림으로 수많은 대중이 존경을 아끼며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순천불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나'는 물음에는 선택 답하지 못한다. 지역불자들은 오히려 '등산 밭이 어두운 것'처럼 불교 사각지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3년 전 전남동부지역불자회(회장 최경태)가 구성되면서 지역불교가 활기를 띠고 있다. 동부지역불자회는 대승사, 흥선사, 정혜사, 동화사

**# 여수** 지난 2000년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수지역 종교조사를 했다. 결과는 불교-개신교-천주교 순으로 나왔다. 유난히 타종교세가 강한 순천, 여수 지역에서 의외로 불교가 선두였다. 더구나 1985년 조사에 비해 불교인구가 1.6% 증가한 것이었다.

종교조사에서 보여주듯 오늘의 여수불교는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분야는 복자다. 석천사에서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향일암도 동여수 노인복지관을 맡고 있다. 여수지역 복지기관 절반을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여수 불교계가 전력투구하는 분야는 바로 복지이다. 사진은 여수에 건립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 연꽃'의 상량식.

- 순천 각종법회·유치원·요양원 신행의 활력
- 여수 불자증가·복지시설 속속 개원 희망 일궈
- 보성 대원사 전통·현대조화로 '가고싶은 도량'
- 고흥 전남 유일 비구니선원 천등선원 주목

등 8개 사암 신도회와 순천시정불자회, 청년회, 운전불자회 등 직능별 신행단체의 연합체다. 매일 정례모임을 통해 지역불교 현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승사는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거사회, 교사불자회, 청년회 등의 법회가 열리는 명실상부한 송광사 순천포교당이다. 1980년 개원한 대승유치원은 순천 최초의 유치원으로, 3개 반 8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지난해 대승사는 무료노인양노시설 '복림촌'을 건립했다. 순천 유일의 불교복지시설로 대사회복지 분야에 첫발을 내디뎈 주위의 기대가 높다.

순천 영향동 신도사에 자리한 흥선사도 10여 년 전부터 도심포교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부부법회를 시작으로 어린이, 학생회는 물론 직장 직능 불자회 창립의 초석을 닦았다.

주지 정환 스님은 "순천은 여수, 고흥, 보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순천불교가 살아야 인근지역 불교도 살아난다"며 순천불교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진옥 스님은 돌산 바닷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 연꽃'을 건립 중에 있어 여수는 가히 불교 복지도시라 할만하다.

현재 3개의 불교관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100여명, 여기에 자원봉사 1000여명, 물품성금 등 후원자가 2000명에 이르고 있어 그 가족까지 합하면 불교타운이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여수 불교복지에 한류하고 있는 기도도량 향일암(주지 종삼)은 복지관 운영을 계기로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세계에 한국문화와 불교를 알리기 위해 도량정비와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들어갔다.

이렇듯 여수불교는 사찰별로 포교분야를 분담하고 있는 편이다. 석천사가 도심포교당, 향일암이 기도사찰 역할을 한다면 용문사는 공단지역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한산사주지 영림은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포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원사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한 포교로 주목받고 있다. 봄이면 5.5km에 이르는 빗꽃터널 아래에서 달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여름이면 연꽃과 수생식물을 모아 연꽃축제를 펼친다. 주말수련회와 국내최초 티베트 불교박물관도 일반인의 발걸

음을 사찰로 향하게 하고 있다.

별교포교당도 지난해 도량불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포교체제에 돌입했다. 전문 상담기법을 시행당에 도입하고 있는 보리 스님은 학생회, 청년회, 거사회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심 포교당의 이점을 살려 새벽예불, 사시예불에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오후에 신행상담에 전념하고 있다.

보성에 비해 고흥에는 능가사, 금담사, 봉래사, 수도암, 송광암 등 비교적 많은 전통사찰이 남아있다. 천등산에 자리한 금담사는 13년 전 서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도량을 일신했다. 극락전, 누각 등을 중창하고, 전남 유일의 비구니 선원 천등선원을 건립했다. 서림 스님은 선원불사가 끝나자 주지를 내놓고 선원장을 맡아 10여명의 수좌들과 정진에 들어갔다.

순천·여수·보성·고흥=이준업 기자

**# 보성·고흥** 보교흥교(보물 제304호), 우천리 삼층석탑(보물 제943호), 유신리 마애여래좌상(보물 제944호), 봉천리 5층 석탑(보물 제1115호) 등 보성의 보

물 4점이 모두 불교문화재이다. 이처럼 보성은 석불, 석탑 등이 산재한 불교성지이건만 대부분의 사찰이 폐찰되고 유일하게 대원사만이 옛 흔적을 안고 남아있다. 근래 들어 송광사 별교포교당을 위시해 사찰들이 복원되고 있다.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사찰 공개운영 포교 노하우**  
일우 스님 (순천 대승사 주지)

**한달에 25일 법회 주관**  
진옥 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신도들과 도량일귀 '한가족'**  
성문 스님 (여수 용문사 주지)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목우가풍' 지키며 열린도량 운영 모범**



어디든 '일복(福)' 많은 이가 있기 마련이다. 조계산지기 영조 스님도 그들 중 한층에 낀다. 주지로 부임한 지 일년, 지난 한 해 동안 행자교육원운영, 사천왕상 복원, 대장경 인경불사, 불교문화축제, 옛길 복원, 박물관 특별전시회 등 겉으로 드러난 일만해도 두 손으로 다 꼽기 어려울 정도다.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목우가풍'을 이어가는 수행자들을 의호하는 일이다. TV, 핸드폰이 없고 대부분의 난방을 보일러대신 땀값으로 해결하는 송광사 기풍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데 영조 스님의 드러나지 않는 성품과 다정다감한 마음씀씀이가 더욱 빛을 발한다.

총림 주지 두 번째 년도를 맞아 주안을 두는 것은 템플스테이와 대사회복지 활동을 펴는 것. 수련시설을 확충해 주말이면 100여명이 정진토록 하며 일주무박에 침단시설을 갖춘 영상센터를 마련해 송광사와 불교문화 를 먼저 이해하고 사찰을 참배토록 할 예정이다. 자비행 실천을 위해 첫 사업으로 소인자 스님들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과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고 생활비 지원은 물론 수시로 찾아가 실질적인 식구가 되기로 결의했다.

범어사 강원사절 학생회 지도부사를 인연으로 포교를 시작한 스님은 별교포교당, 익산 관음사, 진안 천황사를 거쳐 송광사 순천 포교당 대승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간 대중교화에 나섰다. 성공 비결은 포교를 향한 강한 의지와 사찰의 공개운영. '포교당은 공개운영 없이 포교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다.

지난해 대승사는 순천 최초의 불교복지시설 '복림촌'을 개원했다.

일우 스님은 30여 년 전부터 차(茶)를 찾아 전국을 순례해온 숨은 차인으로 무료노인요양시설 복림촌 운영자금을 위해 사찰비방의 하나인 '한방 고추장'을 재현해 보급하고 있다.(복림촌:061-745-0828)



**다양한 행사에 세계 '눈길' 쏘려**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주지)



문화-불교-수행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보성 대원사만의 곳이 또 있느냐. 연꽃축제, 빗꽃길 달리기대회, 주말수련회, 티베트박물관 전시회 등 대원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는 수준 높은 불교문화이며 수행 안간 것이 없다.

현장 스님은 해인사 '해인'지 초대편직장으로 시각 디자인한 봉축카드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주말 수련회 위주로 사찰운영을 바꾼 스님은 10년 전부터 청소년,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했다. 올해에는 전남도 지정 템플스테이 사찰이 됐다. 태아령 천도 백일기도를 통해 법회 경쟁력을 높였고, 티베트박물관을 건립해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자비신행회 이사장을 맡아 불교 복지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0년 종교조사에서 기독교보다 1%이상 신도수가 많은 여수불교. 그 중심에 포교원력보살 진옥 스님이 있다. 20여 년 전, '지역을 알아야 포교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한 스님은 신행프로그램을 물론 역사부터 정리했다. '기복신앙 탈피'라는 결론과 함께 경전읽기 모임을 시작했다. 경전강독 소모임과 불교교양대학, 기초교리학교를 운영하면서 신심이 실천행으로 이어지고 대화행동의 발판이 됐다.

1994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시작으로 여수시노인 복지관 위탁, 어린이집 2개를 개설했다. 2000년부터는 3000여 평의 터에 3층 규모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하얀연꽃'을 건립중이다.

스님은 20년 역사의 경전읽기모임 일일회 법회를 필두로 일반·주부·부부·직장·기초교리 법회 등 매월 25회 이상의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신행상담 포교에 '특효약'**  
보리 스님 (별교포교당 주지)



100년 전, 일제 때 변장했던 불교에 송광사 포교당으로 출발했다. 전형적인 농촌사찰로 퇴락했던 별교포교당의 꿈은 신행상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지 보리 스님은 오전 기도, 오후 신행상담으로 지역별 자들을 서서히 포교당으로 끌어내고 있다. 신행상담에 있어 '업보로 풀어서 무조건 기도하라는 식은 탈피해야한다'는 것이 스님의 주장이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스님이 먼저 전문상담기법을 공부했다. 상담심리교육, 가정폭력, 심리치료 등 각종 상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신행상담에 접목시키고 있다.

근년에는 시민선방운영은 물론 어린이, 학생회에 서 신도 등 각종 법회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성문 스님이 5년 전 초임 주지로 여수에 왔을 때만해도 용문사는 동네집에 불과했다. 스님에게는 열심히 사는 것이 정진이자 포교였다. 신도들의 예배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불사를 단행하고 거사 중심의 유마회를 시작했다. 3명으로 시작한 법회가 석달 만에 30여명으로 늘어났다. 법회 후 승·속 모두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했다. 신도들에게 용문사는 '우리 집'이란 자부심이 강하다.

유마회가 정착되면서 정기법회를 강화했다. 초하루 통일법회,地藏재일(노장충), 관음재일(젊은층), 도요일 참선법회 등 법회를 세분화했다.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여수불교의 얼굴로 불교행사장마다 초청대상 1호로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 참선, 경전강독 등 '주제가 있는 수련대회'를 기획하고 있다.



**합창단·부부법회로 불자 결속**  
정환 스님 (순천 흥선사 주지)



정환 스님은 출가와 함께 포교원력을 세웠다. 10년 전 불교세가 약한 순천에 와서, '힘을 모아야한다'는 생각에 지역사찰을 찾다니며 사람연합회 결성을 호소했다. 단위사찰 합창단을 연합해 가톨릭가 합창단으로 재창단하고 지역불교행사를 장엄했다.

흥선사에는 부부법회(시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학생회 법회를 개설했다.

영향동 신시가지에 자리한 흥선사는 지난해 연건위주 150평 가운데 법당 59평, 소법당 24평 등 법회위주의 포교당으로 거듭났다. 원불모시기 운동을 전개해 각자 자신의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도록 했다.

스님의 얼굴엔 '포교가 수행이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화엄산림' 봉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 태고종 유일의 총림 수행·포교기능 강화**



가장 한국적이면서 전통사찰로서 원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정평이 난 선암사. 지난해 말, 25대 주지로 선출된 상명 스님은 '태고종 유일의 총림 위상에 맞도록 사격을 갖추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10여 년 간 선암사에 살면서 총무, 교무, 포교 등 각 소임을 맡은 스님은 경력을 살려 300명이 정진하는 국내 최고의 총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먼저 선암사 숙원불사인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으로 강원, 선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방 개방과 등반, 참배객을 위한 포교프로그램도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최근 들어 태고총림을 중심으로 공부, 수행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희망적이다"며 "조계총림과 학인들의 교류를 시도해 어느 쪽이든 먼저 도인이 나오도록 수행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주지 지허 스님이 추진해온 '차체결관'을 건립해 선암사 자생자를 이용한 '우리차' 체결과 보급으로 차 생활을 일반화하도록 할 예정이다.